

드림 레터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특집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진로?

심화된 탐색을 통해 진로 적성과 흥미 발견을 도와주세요

진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기

중학교 시기는 진로탐색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꼽힙니다. 고등학교 진학에서부터 학업경로 및 진로설계 등 실제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관심과 흥미, 적성과 소질에 대해 잘 살펴 두어야 합니다. 다양한 진로체험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름방학 중 이루어지는 진로탐색 활동은 학기 중 진행된 진로수업과 진로활동에서 배운 것들을 실질적 경험으로 바꾸고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진로적성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만큼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기록입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흥미를 발견하거나 활동 중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심사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도와주세요. 활동 중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 묻고 답해 봅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화는 물론 정리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녀의 관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녀가 스스로의 적성과 소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돕고 싶다면

진로탐색 결과정리를 마쳤다면 더 궁금한 것은 없는지,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관련 기사를 검색하거나 전국학부모지원센터(<http://www.parents.go.kr>),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 또는 워크넷(<https://www.work.go.kr>) 등을 이용해 관련 진로정보를 찾아보도록 도와주세요. 예시한 사이트들은 진로탐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해당 진로와 관련된 인물들의 인터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동영상 시청하면서 자녀의 관심사가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를 나눠 보세요.

학부모진로



Q 진로탐색 활동을 하고 나서 특정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자녀들은 어떻게 지도할까요?

A 진로탐색을 통해 흥미 분야를 발견했다면 이를 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위에 언급한 사이트를 이용해 진로에 대한 관련 정보와 해당 분야의 인물 인터뷰 등을 찾아볼 수 있게 하거나, 직업흥미검사나 진로성숙도검사 등을 통해 현 단계 자녀의 흥미와 필요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리어넷 홈페이지 > 진로심리검사 > 심리검사 > 청소년용 심리검사 >
직업흥미검사 또는 진로성숙도검사

[청소년용 심리검사 바로가기](#)



자녀와 함께 써 보는 진로탐색 활동 기록



진로탐색을 위한 활동을 마치고 쓰는 체험 기록은 경험을 돌아보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일기와 같습니다. 진로탐색 활동을 기록하면서 자녀들은 각자의 경험이 가진 의미와 자신의 흥미 분야, 관심사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 자녀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아래 표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 정리한 후 함께 비교해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구분	진로탐색 결과예시	진로탐색 결과
체험 날짜	2019년 7월 31일	
체험 장소	방송사 보도국	
체험 활동 내용	뉴스를 만드는 과정 살펴보기	
가장 인상 깊었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뉴스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아나운서나 기자 외에도 연출자, 조명, 카메라맨, 오디오 감독, 자문 담당, 디자이너 등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하면서 모두가 약속한 대로 움직이고 서로를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디자이너가 참여한다. 자막과 로고, 그래픽 화면 같은 것들이 디자이너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됐다. 	
아쉬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조정실과 보조정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친구가 말을 걸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뉴스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를 만나 보지 못해 아쉽다. 	
더 알고보고 싶은 점	뉴스 프로그램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해야 하는 공부와 노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해 보고 싶은 체험	디자이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다.	



손 안의 드림
레터

2019년 8월 26일
모바일 앱북 출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운 진로탐색
<드림레터>를 모바일로 만나세요!

